

주관절의 내측 측부인대 손상에 대한 수술적 치료의 결과

이용걸 · 이재훈 · 전성욱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본 교실에서 1998년 1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주관절 내측 불안정성으로 수술한 9례 중 추시가 가능하였던 7례의 술후 결과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7례 모두 남자였으며, 평균 연령은 25세(19-38세)였다. 평균 추시기간은 14개월(12-24개월)이었으며 수상후부터 수술까지의 기간은 평균 38개월이었다.

투수가 5례였으며, 술중 불완전한 내측 측부 인대가 발견되어 복원술을 시행한 예가 2례였고 5례에서는 장장근을 이용한 재건술을 시행하였다. 우수 및 양호가 5례(71%)였으며 불량 1례(14%), 실패가 1례(14%)였다. 운동 선수 5명중 4명이 운동에 복귀할 수 있었다. 복원술을 시행한 2례 모두 투수였으며, 1례는 투수 생활을 할 수 없었고, 1례는 투구를 할 수 있었다. 재건술을 시행받은 5례 중 3례가 투수였으며, 모두 투구를 할 수 있었다. 나머지 2례 중 1례는 과거의 스포츠 참여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 1례는 불안정성이 있어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었다. 6례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불안정성은 1례에서 나타났다. 1례는 과거 요골 골두 제거술을 시행받은 경우였다. 술후 척골 신경증을 보인례는 없었으며, 불안정성을 보인 1례에서 술전 척골 신경증이 술후에도 남아있었다.

척측 측부인대의 수술적 결과는 과거 요골 골두 제거술을 시행받은 1례를 제외하고 우수 및 양호가 83%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였다.